

광산구, 비좁은 청사 빈 공간 활용 놓고 공무원노조와 마찰

노조, 임시 이전한 1층 교통민원실에 휴게실 설치해 ‘예산낭비’
인구 3배 이상 증가 행정 수요 감안해 ‘제2청사 건립’ 목소리도

광주시 광산구가 일부 부서를 외부로 임시 이전하고 해당 공간에 휴게실 설치를 추진하자 구 공무원노조가 ‘휴게실 설치 예산 낭비’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이에 광산구 청사의 비좁은 공간으로 인한 갈등이 끊이지 않는 만큼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제2청사 건립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광산구는 2일 구 청사 1층에 있는 교통민원실을 인근에 있는 KT빌딩으로 임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전 이후 교통민원실이 있던 자리에는 직원들과 시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휴게 공간을 새로 마련하는 등 비좁은 1층 현관의 특성을 감안해 공간 배치를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광산구 공무원노조는 “안 그래도 청사가 비좁아 직원들의 근무여건이 열악한데도, 빈 공간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며 반대 의

견을 냈다.

직원들이 쾌적하고 여유 있는 공간에서 근무하고 싶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는데도 근무환경 개선은커녕 휴게 공간을 조성에 직원들 의견을 무시했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또 교통민원실 이전은 당초 의회가 예산 낭비라는 이유로 예산안을 부결했는데, 노조가 나서서 사무 공간이 부족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해 통과시킨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당초 예산안을 통과시킨 목적 자체가 직원 사무공간 개선이었다는 것이다.

구와 노조 간 입장이 갈리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한 요구도 대두되고 있다.

노후하고 비좁은 청사를 벗어나 신청사를 짓지 않는 한 사무 공간 부족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광산구 청사는 지난 1988년 인구가 12만 5000여

명일 당시 행정 수요를 감안해 지은 청사로, 현재 인구가 42만명까지 3배 이상 늘었음을 감안하면 공간도 비좁고 민원 수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 광산구 관계자 설명이다.

특히 광산구민의 65%인 26만여명이 수완·침단·신가·신창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의 각종 불편을 충족할 수 있는 제2청사 건립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광산구 주민인 A(65)씨는 “구청이 멀리 떨어져 있어 불편하고 매번 방문할 때면 주차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난 구청장 선거에서 특정 후보가 제2청사 건립을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을 만큼 지역민들에게는 신청사 건립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정부 규정에 기초자치단체 청사 면적 기준이 인구 50만명 이하의 경우 1만 4061㎡로 제한하고 있어 신축은 어려움이 있다”며 “이전되는 교통민원실 공간에 대해서는 열린청사 TF팀을 구성해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을 사전에 나눴는데, 노조와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주시 동구 서석초 일대에서 별별동구 별별마켓이 열리고 있다. <광주시 동구 제공>

“‘별별동구 별별마켓’으로 놀러오세요”

동구, 연말까지 서석초 일원
85개소 참여 지역브랜드 선배

광주시 동구가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에 나선다.

동구는 연말까지 지역 소상공인들이 동참하는 ‘2025 별별동구 별별마켓’을 광주시 동구 서석초등학교 일원에서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지역 내 소상공인 총 85개소가 참여하며 공예품, 패션잡화, 건어물, 디저트 등 다양한 품목의 제품 및 브랜드를 선보이는 자리다.

동구는 행사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동구 사회적경제연합회, 동구 공공급식지원센터, 하이고래 협동조합과 함께 별별마켓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추진위원회는 판매기업 선정부터 프로모션, 부스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 등을 도맡아 진행한다.

별별마켓은 올해 ‘금남로 차없는 거리’ 행사에도 참여해 제품을 소개하고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금남로-서석초로 이어지는 코스에서 판매를 진행해 관광 시너지 효과도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

임택 동구청장은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별별마켓’ 운영이 지역 내 사회적경제 기업,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는데 작게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동구는 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는 마켓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북구, 모든 세대가 살기 좋은 ‘고령친화도시’ 만든다

‘연차별 시행 계획안’ 발표…교통·주택 등 8개 영역 73개 사업 진행

광주시 북구가 ‘2025년 고령친화도시 연차별 시행 계획안’을 발표했다.

계획안은 북구가 171(2023-2025) 기본계획에 따른 2025년 연차별 시행 계획을 수립,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고 어르신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살기 좋은 고령친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추진 사항을 담고 있다.

북구는 WHO(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하는 8대 영역에 따라 고령층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년의 삶이 The 행복한 고령친화도시 북구’로 비전을 설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고령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올해는 ‘외부공간 및 건물’, ‘교통’, ‘주택’, ‘의사소통과 정보’, ‘시민참여와 고용’, ‘지역사회와 보건’, ‘사회 참여’, ‘존중과 사회통합’ 등 8개 영역,

총 73개 사업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시행했던 74개 사업 중 건강·품격있는 안전한 공간 신축, 어르신 보행권 확보를 위한 야광안전 스티커 배부 사업, 빗고을 50+일자리 사업, 북구노인복지센터 치매예방인지발달실 운영 등 8개 사업은 종료됐다.

올해는 시니어를 위한 스마트폰 활용 교육, 100세 이상 어르신 장수축하 물품 지원, 장기요양기관 운영지원, 장기요양기관 요원 특별수당 지원, 두암 권역 특화건강관리사업, 어르신의 존엄한 삶 정리 교육 등 6가지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대표적으로 100세 이상 어르신 장수축하 물품 지원은 북구에 주소를 두고 1년 넘게 거주 중인 만 100세 이상의 노인 80명에게 50만 원 상당의 장수 축하 선물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운수메트’, ‘공기청정기’, ‘제습기’, ‘이불세트’

등 4종 중 1개 물품을 지급받는다. 선물 구입 재원을 고향 사랑 기금으로 마련된 4000만 원의 예산이 활용된다.

그동안 북구는 2023년 WHO 고령친화도시 인증 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고령친화도시 3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를 운영해 고령친화도시 인증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했다.

올해는 앞으로 2년간 고령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링단을 운영, 현장 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의 불편사항을 모니터링하고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개선사항 등을 제시한다.

북구 관계자는 “전 세계적 고령화 문제에 공동 대응하고 원활한 정보 공유를 통해 건강 복지 도시를 구현하겠다”며 “고령친화도시 73개 전략사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 후 성과지표를 관리해 고령친화도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아동주거빈곤가구에 ‘꿈이 빛나는 공부방’ 지원

서구, 반지하·옥탑 등 주거환경 개선 필요한 가구에 개선비 지급

광주시 서구가 주거환경이 열악한 아동을 위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서구는 이달 말까지 아동주거빈곤가구를 위한 ‘꿈이 빛나는 공부방 조성사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공부방 조성사업은 18세 미만 아동을 포함한 가구 중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반지하나 옥탑, 최저주거면적(4인가구 기준 43㎡) 이하, 주택 이외의 거

처에 실거주하고 있는 아동주거빈곤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가구들에 대해 도배와 장판, 수납과 정리를 위한 비용을 비롯해 아동가구 구입비 등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비도 지원할 방침이다. 가구들이 이사를 할 경우 월 임대료(이자)와 이사와 및 중개수수료도 제공한다.

서구에 주소를 두고 1개월 이상 살고 있으면 신

청할 수 있다. 거주지 기준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을 받으며 자세한 내용은 서구청 돌봄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이번 공부방 조성사업은 서구가 5개 자치구 중 처음으로 ‘서구 아동주거빈곤해소를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박용금 돌봄정책과장은 “지역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성장하고, 안정적인 주거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공부방’을 마련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며 “학생들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대상자 본인은 물론 주변인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남구, 감염병 예방 ‘해충 유충’ 선제 방역

17개 동 대상 주택·원룸촌 등

광주시 남구가 감염병 매개 해충의 조기 확산을 막기 위해 2주간 집중 방역에 나선다.

남구는 오는 11일까지 관내 17개 동을 대상으로 파리·모기·바퀴벌레 등 해충 유충을 제거하는 선제 방역소독을 실시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른 무더위가 예상되는 가운데, 봄철 해충의 저항력이 급격히 약해지는 시기를 겨냥한 대응이다.

남구는 방역 기동반을 편성해 주택가와 원룸촌 인근 쓰레기 배출 장소를 중심으로 집중 방역을 벌인다. 공중화장실, 가족 사육지, 하천 등 주민 생활권 내 주요 93곳도 함께 소독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올해는 4월부터 더위가 시작되는 기상 예보에 따라 방역의 고삐를 더 조일 수밖에 없다”며 “주민들도 주변 물웅덩이 제거 등 개인 방역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남구는 지난 2월 해빙기부터 정화조와 하수구 등 유충 서식지를 중심으로 유충 구제 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광주일보 73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그린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알로에 베라겔 즙액으로
400%

그린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건강기능식품
1000ml x 3종(9,000ml)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매원 : (주)그린알로에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 받은 광고를 입니다.